

게슈탈트 집단치료가 가출청소년의 자기개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여자 가출청소년을 중심으로

김민정[†]

강남가톨릭성모병원

김정규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가출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19명의 남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슈탈트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게슈탈트 이론을 바탕으로 통합예술 치료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감정 표현 및 수용 촉진, 집단원 간 지지의 활용 등 지지 표현적 요소, 집단 구성원간의 관계형성 등 대인관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가출 청소년들의 정서적 갈등을 완화하며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우울 및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서울시내 한 지역에 위치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3년 5월 2주간 총 2개의 집단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4시간씩, 총 6회기로 진행되었다. 자기개념, 우울, 불안 질문지를 남녀 쉼터 각각에서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배부하고 무선 할당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었다. 여자 쉼터의 경우 실험 집단 7명, 통제 집단 7명이었으며 남자 쉼터의 경우 실험 집단 4명, 통제집단 2명으로 2개의 실험집단과 2개의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집단치료 직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주 뒤에 추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첫째 게슈탈트 집단치료는 전반적인 자기개념과 그 하위척도인 정서안정성, 대인신뢰감을 유의하게 향상시켰고, 추수 검사에서 정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유지되었다. 둘째, 게슈탈트 집단치료는 우울의 하위척도인 자기 비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치료가 종결된 2주 후에도 지속적인 효과가 유지되었다. 셋째 게슈탈트 집단치료는 불안감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추수 검사에서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연구의 임상적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요어 : 가출 청소년, 게슈탈트, 집단 심리치료, 자기개념, 우울, 불안

[†] 교신저자 : 김민정, 강남가톨릭성모병원
E-mail : leona13@hanmail.net

청소년들은 주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 삶에 대한 의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갖고 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려 한다.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고뇌하고 방황하는 것은 발달과정에서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자신들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

급속한 사회변화,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출현, 대중문화의 범람, 계층간·세대간·지역간의 갈등, 이혼율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 등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은 위협받고 있다.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가야 할 청소년들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정체감의 혼돈에 빠질 경우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 삶의 목표마저 상실하게 된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부모의 무관심 또는 지나친 간섭 등을 극복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가출을 돌파구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가출은 일시적으로 끝나기도 하나, 심한 경우에는 유흥업소 취업, 약물남용, 절도 등의 심각한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가출의 심각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청 자료(2002)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수가 18,000~19,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고통계에 포함될 수 없거나 포함되지 않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가정을 등지고 길거리를 떠도는 청소년의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소년단체 등의 각종 설문조사를 참고할 때 청소년 가출의 수는 매년 10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출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요인, 또래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그 중에서 개인적인 요인은 가출청소년이 일반 청소년과는 구분되는 심리적, 정신적 이상 또는 부정적 태도 등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에 기초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Revienson과 Mezei(1970)는 가출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낮은 자아개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감이 결여되어있고,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자기의심이 많고 방어적이라고 논했다. Kaplan(1980)은 비행행동을 자아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는데, 자아개념이 낮은 청소년은 비행행동에 보다 쉽게 개입하게 되며, 이것은 비행행동이 자아증진의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대안적인 행동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Yate(1985)는 청소년 765명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한 결과 또래비교집단과 비교해 볼 때, 가출청소년은 더 우울하고 과거에 자살기도 경험이 있으며, 자살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이며 다른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La Gory, Ritchey 및 Mullis(1990)는 가출청소년들의 우울증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들의 거의 60%가 임상적으로 우울증 증세를 나타냈다고 논하였다.

Rothman(1991)은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 청소년들에 비해 깊은 심리적 상처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낮은 자존감, 자신감 및 침착성의 결여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그 외에 혼란되고 방향성을 상실하고 정서적으로 혼돈상태에 있으며, 우울과 자해를 포함한 자기 파괴적 행동의 경향이 있음을 보인다고 했다. 또한 이같은 특성 때문에 가출청소년의 자아상, 자신감, 대인관계성,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지지적인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성경(1997)의 연구에서 가출청

소년은 외로움, 불안감, 우울감, 두려움, 분노, 참을성이 없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가출 청소년의 우울, 불안, 낮은 자아 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 왔는데,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입 및 치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미경(1987)은 동부아동상담소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과제중심모델을 적용한 사례 연구를 하였는데, 첫째,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가출청소년들이 게임이나 다른 도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둘째, 긍정적이고 성취감을 주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셋째, 격려와 지지를 해주어 자신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임기순(1998)은 가출경험이 있는 중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한 결과 상태불안감소와 특성불안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손옥주(1984)는 재가출 방지를 위해서 가족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혜영(2000)은 가출 아동의 연구 동향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과 치료를 위해서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인 교류나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가족의 개입 모델과 치료적 보호시설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선관(2001)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해 자아존중감 향상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이정희(2000)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자아 존중감 및 주장성의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이경아, 정현희(1999)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행동 상담이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의 향상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학교 적응에 효과적인 것으로 증

명되었다.

가출 청소년과 계슈탈트 이론에서 보는 낮은 자기개념, 우울, 불안과의 관련성을 보면, 자기개념은 한 개인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종합적 견해와 태도로, 현상학적 측면에서의 자신의 내적 상태와 외적 상태가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지각이라 정의하였다(김정규, 1995). 청소년기는 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여서 외부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교적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해오던 청소년들도 예기치 않은 충격적인 경험에 의해 갑자기 매우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되는 수가 있다. 예컨대,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성폭력, 신체질병, 가정파탄 등으로 인해 평소 명랑하던 학생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침울해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Kaplan(1980)은 자기개념이 낮은 청소년은 자아증진의 대인적인 행동양식으로 비행행동에 보다 쉽게 개입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여러 연구들이 이러한 추론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chwartz(1965)는 10쌍의 양극형용사를 사용하여 비행소년과 정상소년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연구에서 비행소년이 보다 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우울의 계슈탈트적 접근에서는 Tyson과 Range(1981)는 우울증을 상전(Top-dog)과 하인(Under-dog)의 무의식적 대결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우울증이란 내담자가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공격성 측면을 상전에게 투사하고, 다시 상전이 하인을 억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때 하인은 굴종, 조종, 강요, 요구적 행동 등 갖은 수단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자립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우울증을 일으킨다.

이들은 우울증의 특징을 전지전능한 상전과 무기력한 하인의 분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으며, 치료로는 우울증 뒤에 숨어있는 분노감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Perls(1976)는 우울에 대한 게슈탈트적 견해와 정신분석적 입장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료적 접근은 상당히 다르게 보았는데, 정신분석적 접근은 본질적으로 'There and Then'으로 통찰(insight)과 불안을 야기하는 기억을 강조하는 반면, 게슈탈트적 접근은 "Here and now"에서 순간을 자신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알아차려보는 것(awareness)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유기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기 조절 능력을 신뢰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Polster & Polser, 1973). Kaufman과 Heims(1958)는 청소년들이 우울감정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정과 행동화의 정신방어기제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같은 연구 결과들은 우울증이 청소년들의 자살문제 및 비행, 학교부적응 등 전반적인 청소년 부적응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erls(1970)는 불안을 현재와 미래 사이의 간격으로 보았다. 불안은 인지적으로 현재-중심을 잃어버릴 때 일어난다. 이러한 불안은 부정적 예견, 잘못된 해석, 비합리적인 신념의 형태로 나타난다.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불안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또한 불안과 관련된 성격 특성들을 다룬다. 내담자는 현재에 집중해서 머무르고, 호흡 훈련, 명상, 이완 훈련, 신체 자각 훈련들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불안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운다. 게슈탈트 치료에서 불안에 대한 이론은 개체가 현재를 잘 알아차리고 충분히 호흡할 때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된다고 말한다. 이같이 게슈탈트 이론을 바탕

으로 하는 치료 방식은 다양한 접근 방식과 기법을 통해 내담자 개인의 양극화된 자기상을 통합하며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성립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며, 신체 자각과 명상 등을 통한 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게슈탈트 치료는 실존적 만남을 통해 자각을 강조하며, 대인 관계 갈등을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고, 서로를 활성화하는 방법과 지역 사회의 소속감, 상호간의 지지와 존경을 성취하기 위해 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며, 보고 느낀 바를 해석하지 않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을 중시한다(Zinker, 1977). 게슈탈트 이론을 토대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분석이나 통찰 보다는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며 치료의 행동지향적인 기법들은 내담자로 하여금 강력하고 즉각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해묵은 느낌을 재 경험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자기개념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서 Foulds, Weight 및 Guinan(1970)은 마라톤 형태의 24시간 게슈탈트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자아실현의 긍정적인 변화가 발견되었으며 김창겸(1987)은 교회홍보를 통해 자진 참가한 여고 1,2학년생 8명을 대상으로 게슈탈트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자아개념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김두홍(1985)은 고등학교 2학년생 25명을 대상으로 게슈탈트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자아개념의 지속적인 변화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쳤으며, 노안영(1996)은 남녀 대학생 16명을 대상으로 게슈탈트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자존감과 자아개념 그리고 인간성숙의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한기백(1995)은

계슈탈트 자각증진 집단상담에 의한 내담자의 체험수준과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불안감소와 관련된 연구로서 Kipper와 Gilade (1978)는 계슈탈트 상담기법이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Greenberg와 Webster(1982)는 상태불안의 감소, 어떤 일에 대한 결정 행동의 변화, 목적달성 등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성구(1985)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계슈탈트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계슈탈트 집단 상담이 불안수준의 감소에 기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같이 계슈탈트 집단심리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정서적 부적응과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여 지지와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슈탈트 집단심리치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슈탈트 집단치료가 가출청소년의 자기개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임상 실제에서 가출 청소년 혹은 부적응 청소년의 계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두 집단 모두 서울시의 한 지역에 소재해 있는 가출청소년 단기쉼터에 거주하는 남녀 청소년들로 모집하였다. 프로그램의 간략한 소개와 일시를 공고하였고,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전에 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무선 할당하여 실험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남녀 실험 집단에 계슈탈트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통제 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실험집단은 11명(여7명, 남4명), 통제 집단은 8명(여6명, 남2명)으로 2003년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여자 집단, 2003년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남자 집단에 계슈탈트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집단 상담이 끝난 2주 후에 추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남자 집단의 경우 단기 쉼터의 특성이 강하여 대부분의 참여자가 퇴소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옮겨 추수 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계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

계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1회당 4시간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한 회기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두 시간씩 실시하였다.

표 1에서 계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김정

표 1. 계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

회기	내용
1	소개 및 별칭 짓기 미해결과제 알아차리기
2	신체 및 욕구 자각 환경 자각
3	나는 누구? 욕구 자각
4	story telling 가족 역할극
5	양극성 통합 나를 칭찬하기
6	자신과의 만남 마무리

규(1995)의 계슈탈트 심리치료, Violet Oaklander (1978)의 Windows to our Children, 이영이(2001)의 통합 예술심리치료의 계슈탈트 예술치료 부분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감정 표현 및 수용 촉진, 집단원 간 지지의 활용 등 지지-표현적 요소, 집단 구성원간의 관계형성 등 대인 관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 회기. 첫 회기는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해 보는 내담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서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함께 정하였다. 별칭을 짓고 소개문을 작성하고, 자신의 미해결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여 참여에 대한 동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집단 신체작업을 통해 신체의 감각과 외부 환경을 느껴 보고 자신의 신체 어느 부분에서 긴장감이 느껴지는지 자각해 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손으로 대화하기’기법을 이용하였고, 집단 초기에 느껴질 수 있는 불안이나 긴장감, 어색함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어릴 때 집 그리기를 통해 자신이 가족이나 성장 과정에 대해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2 회기. 2회기에는 환경과의 접촉을 목표로 하면서 집단원들이 느낄 수 있는 우울감이나 초조함 등을 해소하고 집단 신체 작업으로 상대방과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통해 친밀감을 경험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Clay Work는 친구에게 선물을 만들어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손으로 찰흙을 주무르면서 신체 감각에 대한 자각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물리적으로 형상화하는 체험을 함

으로써 알아차림과 접촉을 강화해보도록 하였다.

핑거 페인팅을 하면서 집단원들이 모두 그림 그리기에 참여함으로써 전체적인 집단 역동의 표현 및 집단 안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과 대처 행동들,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자각하도록 하였다.

3 회기. 신체이완과 호흡조절 연습을 배으면서 긴장감을 줄이고, 동작을 따라 하면서 자신의 신체 감각을 느껴 보며, 상상여행을 떠날 준비 단계를 거치고 안내된 지시문을 통해 ‘나무 되어보기’의 연상을 하였다. 투사된 자기의 이미지를 알아차리고, 집단원 각자의 욕구를 자각하고 거기에서 경험되는 감정들을 자각하면서 이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4 회기. 집단 치료가 중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집단원 간의 갈등과 지배, 저항이 일어났으며, 저항과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집단 응집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단계부터 집단원 개인 내 미해결 과제를 알아차리고 직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Story Telling -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주제 - 으로 각자 돌아가면서 처음의 문장에 이야기를 덧붙이고 공동의 이야기를 창작하였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이야기를 해보고 그 안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을 도출하고, 가족의 상황을 토대로 역할극을 만들어 가족에서 경험한 미해결 과제를 다루어 보았다.

5 회기. 자신의 양극성을 그려 봄으로써,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면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이 무엇인지 자각해보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면서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자신이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이 반드시 숨겨야 하는 부분인지 타인들의 시각을 통해 점검해보기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판단을 재조정하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자아 개념의 수정과 통합을 꾀하였다. 또한 나를 칭찬하기를 통해 이전의 양극성 작업과 연계하여 자신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주고, 새로운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얻도록 시도하였다.

6 회기. 집단원 각자가 자신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통해 얻었던 것에 대해 돌아보고, 집단 안에서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였다.

‘박수박수’라는 기법으로 구성된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긍정과 지지를 체험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집단 안에서 수용 받는 경험을 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측정도구

성신 자기개념 검사

성신 자기개념 검사는 김정규(1999)가 Deusinger (1986)의 ‘프랑크푸르트 자기개념 검사’와 Battle (1992)의 ‘문화 효과가 없는 자존감 척도(Culture-free Self-Esteem Inventory)’에 근거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제작한 성신 자기개념검사로 86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이 검사는 총 86문항으로 자기존중감(self-esteem; 19문항), 정서안정성(emotional stability; 16문항), 대인관계능력(interpersonal relationship; 16문항),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17문항), 대

인신뢰감(interpersonal trust; 18문항)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형식은 ‘아주 그렇다(1점)’에서 ‘전혀 아니다(5점)’의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는 각 하위척도 점수에 따른 T 점수와 이를 합산한 총 점수로 계산된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86점에서 430까지이며,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김민동(2003) 연구에서의 자기개념 전체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6이고, 자기존중감 .91, 정서안정성 .82, 대인관계능력 .87, 문제해결능력.82, 대인신뢰감.86 이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개념 전체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 자기존중감 .83 정서안정성 .74, 대인관계능력 .89, 문제해결능력 .81, 대인신뢰감 .79로 나타났다.

CDI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한유진(1993)이 번안한 아동용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이는 Kovac과 Beck(1977)이 아동기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이 척도는 Beck(1967) 등이 성인용 우울척도를 아동의 연령에 맞게 변형시켜 7세에서 17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각 문항들에 대해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기술해주는 정도를 0점에서 2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에서 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신민섭, 김민경, 1994; 오송희, 1999). 조수철과 이영식(199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8였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STAI

본 연구에서는 김정택(1978)이 번안한 STAI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를 사용하여 불안을 측정하였다. STAI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2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언제나 그렇다’(4점)까지로 Likert 방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상태불안 질문지는 현재 느끼는 상태적인 불안을 측정하고, 특성불안 질문지는 일상적으로 느끼는 지속적인 불안을 측정한다. 치료 처치가 지속적인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태 불안보다는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특성불안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특성불안 질문지의 1, 6, 7, 10, 13, 16, 19번 문항은 역방향으로 점수 처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3이었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부모학력, 소득원, 소득정도, 휴학 여부, 휴학사유, 가출회수, 총 가출기간, 가출 사유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집단간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집단 간 차이 비교를 위해 대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계슈탈트 심리치료에 따른 처치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의 대응 표본 t 검증, 치료에 따른 처치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의 연령, 학력, 가출기간 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을 보면 가출 청소년은 총 19명으로 치료집단 11명, 통제집단 8명이다. 대상자는 여성과 남성이며 치료집단의 경우 평균 나이는 15.8세였고, 통제집단의 평균 나이는 16.5세였다. 학력은 두 집단 모두 중학

표 2.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남	여	남	여	
연령	14-15	1명	3명	0명	1명
	16-17	1명	3명	2명	2명
	18-19	2명	1명	0명	3명
합계	4명	7명	2명	6명	
학력	초등중퇴	0명	2명	0명	0명
	초등졸	1명	0명	1명	0명
	중중퇴	1명	2명	1명	2명
	중졸	1명	1명	0명	1명
	고중퇴	1명	2명	1명	1명
가출 기간	고졸	0명	0명	0명	0명
	무학	0명	0명	0명	1명
	6개월 미만	0명	1명	0명	1명
6개월 이상	4명	6명	2명	5명	

교 중퇴가 가장 많았으며, 가출 기간은 6개월 이상이 많았다.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비교

쉽터 청소년 집단이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고려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연령, 학력, 가출회수, 가출 기간의 동질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쉽터의 경우 참여자가 대부분 중도 탈락하여 결과처리를 할 수 없었다.

실험-통제 집단간 사전 동질성을 비교하기

표 3. 실험-통제집단간 사전 동질성 비교

		집단(n)	t (df=11)
인구 통계적 특성	연령	실험(7)-통제(6)	-1.48
	교육정도	실험(7)-통제(6)	-1.18
	가출회수	실험(7)-통제(6)	-.66
	가출기간	실험(7)-통제(6)	.00
자기 개념	자아 존중감	실험(7)-통제(6)	-1.28
	정서 안정성	실험(7)-통제(6)	-.81
	대인관계능력	실험(7)-통제(6)	-2.30*
	문제해결능력	실험(7)-통제(6)	-1.85
	대인 신뢰감	실험(7)-통제(6)	-.87
	총 자기개념	실험(7)-통제(6)	-1.91
우울감	우울 정서	실험(7)-통제(6)	1.06
	행동 장애	실험(7)-통제(6)	1.07
	흥미 상실	실험(7)-통제(6)	1.48
	자기 비하	실험(7)-통제(6)	.65
	생리적증상	실험(7)-통제(6)	-.16
	총 우울	실험(7)-통제(6)	1.30
불안	특성불안	실험(7)-통제(6)	.55

* $p < .05$.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개념 척도 중 대인관계능력이 더 낮은 것을 제외하고($t = -2.30, p < .05$) 두 집단 간에 측정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 비교

치료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서 치료 전과 후에 심리적 측정치에 차이가 나는지와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치료집단은 치료 전과 비교하여 치료 후에 자기개념과 관련하여 총 자기개념($t = -2.73, p < .05$), 정서안정성($t = -4.26, p < .05$)과 대인신뢰감($t = -2.95, p < .05$)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우울과 관련하여 자기비하($t = 3.58, p < .05$), 불안과 관련하여 특성불안($t = 2.93, p < .05$)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반면, 아무런 처치도 받지 않은 통제 집단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의 유의한 저하($t = 3.58, p < .05$)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치료 집단에서 치료 후에 자기개념의 하위 척도 중 정서 안정성, 대인신뢰감이 향상되었고 우울감의 하위 척도 중 자기비하, 그리고 특성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자기개념에서의 정서안정성은 내적 대상을 통합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얻어지는 능력이다. 정서적 안정과 일관된 행동으로 대표되며, 이를 통해 자기구조의 안정성이 증가되고 주변 환경에 대해 보다 덜 민감하게 되어 행동이 명확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들의 평가를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인식하지 않으며, 타인들로부터 주

표 4.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 비교

	치료집단($n = 7$)			통제집단($n = 6$)		
	치료전 $M(SD)$	치료후 $M(SD)$	t ($df=7$)	치료전 $M(SD)$	치료후 $M(SD)$	t ($df=6$)
자아 존중감	46.43(13.84)	49.71(14.83)	-1.47	55.67(11.91)	54.67(11.24)	.26
정서 안정성	37.29(9.12)	48.29(5.35)	-4.26*	41.00(6.96)	44.33(5.79)	-1.04
대인관계능력	50.86(13.43)	53.86(9.24)	-1.31	64.67(6.38)	59.00(4.65)	3.58*
문제해결능력	48.71(9.78)	50.14(8.43)	-.54	59.33(10.75)	53.33(8.94)	1.91
대인 신뢰감	44.00(9.45)	51.86(8.28)	-2.95*	48.33(8.41)	50.67(8.45)	-.80
총 자기개념	227.29(48.22)	253.86(39.66)	-2.73*	269.00(24.29)	262.00(24.99)	.60
우울 정서	5.43(1.62)	5.57(1.40)	-.35	4.50(1.52)	4.00(1.79)	2.24
행동 장애	5.71(2.69)	5.57(2.30)	.26	4.33(1.75)	5.00(2.00)	-.79
흥미 상실	7.57(2.99)	7.29(3.77)	.47	5.33(2.34)	5.67(2.50)	-.608
자기 비하	4.43(2.88)	3.14(2.97)	3.58*	3.50(2.17)	3.17(1.47)	.79
생리적 증상	2.86(1.07)	2.57(0.98)	1.00	3.00(2.00)	2.83(1.83)	.35
총 우울	26.00(8.56)	24.14(9.32)	1.47	20.67(5.61)	20.67(6.15)	.00
특성불안	57.57(10.83)	51.43(10.20)	2.93*	54.67(7.66)	50.17(9.83)	1.28

* $p < .05$.

어지는 사랑과 존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울에서의 자기비하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을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 치료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가치에 대한 왜곡된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 내적인 긍정성을 통합하는 경험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현재 처해있는 상황, 특히 외부 환경에 대한 신뢰감 부족으로 세상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안감이 집단 치료를 통해 타인들과의 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안정감을 경험하면서 삶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감소

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치료집단의 사전-사후-2주 추수 차이 비교

치료 집단과 통제 집단 각각에서 치료 전과 치료 후, 2주 추수 검사 사이에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를 보면, 치료집단의 경우 자기개념과 관련하여 정서안정성($F = 10.19, p < .05$)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우울과 관련하여 자기비하($F = 4.30, p < .05$)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불안과 관련하여 특성 불안($F = 3.40, p < .05$)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치료집단의 사전-사후-2주 추수 차이 비교

측정치	평가시기	사전평가		사후평가		추수평가 (2주후)		측정 시기	집단* 측정시기	측정대조	
		집단 (n=7)	통계 (n=6)	실험 (n=7)	통계 (n=6)	실험 (n=7)	통계 (n=6)			F	F
자기 개념	자아 존중감	46.43 (13.84)	55.67 (11.91)	49.71 (14.83)	54.67 (11.24)	47.43 (10.01)	53.00 (9.06)	.328	.469	ns	ns
	정서 안정성	37.29 (9.12)	41.00 (6.95)	48.29 (5.35)	44.33 (5.79)	44.2 (5.75)	49.33 (4.84)	10.19*	3.14	사전 사후 사후 추수	ns
	대인관계 능력	50.86 (13.43)	64.67 (6.38)	53.86 (9.25)	59.00 (4.65)	52.85 (9.58)	59.16 (5.04)	.46	4.50*	ns	사전 사후
	문제해결 능력	48.71 (9.78)	59.33 (10.75)	50.14 (8.43)	53.33 (8.94)	48.86 (6.28)	54.67 (6.62)	.58	1.54	ns	ns
	대인 신뢰감	44.00 (9.45)	48.33 (8.41)	51.86 (8.28)	50.67 (8.45)	51.29 (7.32)	52.17 (8.09)	3.11	.94	ns	ns
	총 자기 개념	227.29 (48.22)	269.00 (24.29)	253.86 (39.66)	262.00 (24.99)	244.71 (31.83)	268.33 (20.87)	.80	2.60	ns	ns
우울	우울 정서	5.43 (1.62)	1.50 (1.52)	5.57 (1.40)	4.00 (1.79)	4.57 (2.22)	4.83 (2.04)	.45	1.81	ns	ns
	행동 장애	5.71 (2.69)	4.33 (1.75)	5.57 (2.30)	5.00 (2.00)	7.14 (3.53)	6.00 (1.26)	1.24	.39	ns	ns
	흥미 상실	7.57 (2.99)	5.33 (2.34)	7.29 (3.77)	5.67 (2.50)	7.29 (2.56)	6.00 (3.10)	.02	.29	ns	ns
	자기 비하	4.43 (2.88)	3.50 (2.17)	3.14 (2.97)	3.17 (1.47)	1.14 (2.54)	3.17 (2.48)	4.30*	1.36	사전 사후	ns
	생리적 증상	2.86 (1.07)	3.00 (2.00)	2.57 (.98)	2.83 (1.83)	2.29 (.76)	2.67 (2.16)	.46	.032	ns	ns
	총우울	26.00 (8.56)	20.67 (5.61)	24.14 (9.32)	20.67 (6.15)	25.43 (9.93)	22.67 (6.95)	2.08	.53	ns	ns
불안	특성 불안	57.57 (10.83)	54.67 (7.66)	51.43 (10.12)	50.17 (9.83)	54.00 (11.33)	49.17 (6.71)	3.40*	.21	사전 사후	ns

* $p < .05$.

ns: not significant

이러한 결과는 치료가 종결되고 2주 후까지도 치료 직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던 정서 안정성과 자기비하, 특성 불안에서 치료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김정규(1995)의 게슈탈트 심리치료, Violet Oaklander(1978)의 'Windows to our Children', 이영이(2001)의 통합 예술심리치료의 게슈탈트 예술치료 부분을 참고하여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게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그 효과를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가출 청소년들의 자기 개념을 향상시키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무선 할당으로 배정된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였는데, 자기개념과 관련하여 대인관계 능력을 제외하고 모든 측정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치료 집단의 대인관계 능력이 더 낮았으나 그 밖의 모든 측정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이 치료 전에는 대체로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치료 전-후 비교에서, 치료 집단의 경우 치료 전과 비교하여 총 자기 개념지수가 높아졌고, 정서 안정성 및 대인신뢰감 등이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적 대상을 통합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서안정성을 얻고, 타인들과의 좀

더 공고하고 안정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험을 통해 대인신뢰감이 상승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의 하위 척도인 자아 존중감,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통제 집단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반면, 실험 집단에서 모두 증가 되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 개념의 사전-추수 검사를 비교할 때 자기개념의 하위척도 중 정서안정성만이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어 게슈탈트 집단치료가 정서안정성에 지속적인 긍정적 효과를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집단치료 처치 직후에 유의미하게 증가를 보인 대인신뢰감의 경우, 지속성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밖에 자아 존중감,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위의 세 가지 특성의 경우 변화에 좀 더 시간을 요하는 특성들로 사료되며, 추후에는 회기와 기간을 좀 더 늘려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울감과 관련하여 치료 전 후 비교에서, 치료 집단의 경우 치료 전과 비교하여 자기 비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게슈탈트 집단치료에서 집단원의 상호 지지와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수용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를 비하하는 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 검사와 추수 검사를 비교할 때 자기 비하의 유의한 감소가 지속 되었으나 행동문제, 우울정서, 흥미상실, 생리적 증상 등의 유의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출 청소년들이 처한 복잡하고 불행한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인 우울감이 매우 깊고, 집단 치료적 접근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성 불안의 경우 치료 집단이 치료 전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사전-추수 검사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계슈탈트 집단 치료를 통해 타인들과의 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안정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현재 욕구와 상태에 대한 지지를 받게 되면서 삶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감소되고 그 효과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계슈탈트 치료기법이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Kipper와 Gilade (1978)의 연구 보고 및 상태불안의 감소, 어떤 일에 대한 결정 행동의 변화, 목적달성 등에 효과가 있다는 Greenberg와 Webster(198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국내 연구로는 계슈탈트 집단치료를 받은 아동들의 자아 존중감이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는 연구보고(김수진, 2003)와 계슈탈트 집단치료가 여중생의 자아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장영향, 2000), 학급 대상의 계슈탈트 집단 상담이 학생들의 자아 개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보고와도 일치한다(김근혜, 2000). 또한 계슈탈트 집단 상담이 대학생의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박종옥, 1993). 불안과 관련하여 계슈탈트 집단 치료가 청소년의 특성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보고(한혜영, 2001)와 계슈탈트 집단상담이 긍정적인 자기 개념의 형성과 특성 불안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이순일, 1997).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 대상 선정이 서울의 한 지역구에 한정되어 있고 참가자의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집단 구성원의 표집에서 동질성은 가정되었으나 가외변인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연구자가 계슈

탈트 심리치료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대학원생으로 집단 치료를 이끄는 데 있어 미숙함이 많고, 운영 과정에서 supervision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역동을 파악하고 전이와 역전이를 인식하고 제어하는데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계슈탈트 집단치료를 현장연구이므로 연구 기간동안 종속변수에 효과를 주는 특정사건의 발생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장 연구시 연구를 위한 환경의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연구는 그 실험결과의 내적 타당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집단회기의 문제이다. 회기마다 2시간이었으나, 모두 6회기로 전체적으로 짧아서 기간이 좀더 길어지면 집단치료의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 회기를 장기간으로 늘려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가출 청소년들이 기존에 경험하고 있는 무력감과 참여 동기의 부족이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근원적인 불안정 요인의 해소가 없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치료과정을 통해 얻은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반감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가출 청소년에 대한 치료적 프로그램의 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이 더욱더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쉼터에 거주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계슈탈트 집단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많으나 그 심각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쉼터

에 거주하는 장기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된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미비한데, 본 연구 결과는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계슈탈트 집단 치료를 통해 이미 만성화된 정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출 청소년들의 정서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시점 뿐 아니라 프로그램 종결 2주 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지속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가출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 완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욱 엄격하게 통제된 연구 설계에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참가자의 수를 더 많게 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계슈탈트 치료 기법을 실시하였으나 이후에는 다른 치료양식을 사용한 프로그램들의 효과 비교를 통해 어떤 치료적 접근이 더 유용한지를 밝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 연구를 통해 집단치료를 받은 청소년에서 대인 관계 및 적응 방식에 이득이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경찰청 방법국 (2002). 청소년 방법국. 서울: 경찰청 방법국.
김근혜 (2000). 학급 대상의 계슈탈트 집단상담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

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두홍 (1985). 계슈탈트 치료 기법에 의한 집단상담이 자아개념의 변화와 그 특성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동 (2003).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선관 (2001). 가출소녀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광주대 경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경 (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성구 (1985). 중학생의 불안 감소를 위한 형태주의 집단상담 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수진 (2003). 자각중심 계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 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규 (1995). 계슈탈트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김정규 (1999). 성신자기개념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창검 (1987). 형태주의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여고생의 자아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 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노안영 (1996). 계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 개발과 효과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상담연구, 7(1), 79-106.
- 박종옥 (1993). 계슈탈트 집단상담이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옥주 (1985). 재가출 아동 치료과정에서 가족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송전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신민섭, 김민경 (1994). 아동기 우울증의 평가.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5(1), 12-27.
- 오송희 (1999).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관현 (1984). 게슈탈트 치료이론에 대한 고찰. 인간이해(서강대학교 생활상담실), 6, 61-78.
- 이경아, 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11(2), 213-226.
- 이순일 (1997). 계슈탈트 집단상담이 자존감 과 대인관계 변화 및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 집중적 형태의 집단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이 (2001). 통합 예술심리치료. 대학 생활연구, 15, 63-77.
- 이유경 (1998). 중학교 남학생의 가출특징 및 요인에 관한 연구 - 수원시내 남자 중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장호 (1975). 계슈탈트 치료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고찰. 학생연구(서울 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12(1), 14-20.
- 이정희 (2000).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 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림, 박연수 (1995). 계슈탈트 치료에 대한 고찰. 인문연구(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9, 297-323.
- 임기순 (1998). 집단상담이 가출 경험 학생의 불안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영향 (2000). 계슈탈트 집단 상담이 여중생의 자존감과 EQ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수철, 이영식 (1990). 소아정신질환의 분류. 정신의학, 121, 243-259.
- 한기백 (1995). 계슈탈트 자각증진 집단상담에 의한 내담자 체험수준과 자아 정체감의 변화.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유진 (1993).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혜영 (2000). 계슈탈트 집단상담이 불안과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미경 (1997). 가출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안 연구 - 과제 중심 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ttle, J. (1992). *Culture-free Self-Esteem Inventories*. Austin, TX: Pro-Ed.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 Deusinger, I. (1986). *Die Frankfurter Selbstkonzeptskalen (FSKN)*. Hanamueisung. Gottingen: Hogrefe.
- Foulds, M. L., Wright, J. C., & Guinan, J. F. (1970). The marathon group: A six-month follow-up.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al*

- 11, 426-431.
- Greenberg, I., & Webster, M. (1982). Resolving decisional conflict by Gestalt two chair dialogue: Relating process to outco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468-477.
- Kaplan, H. 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ce of self*. NY: Academic Press.
- Kaufman, I., & Heims, L. (1958). The antisocial child and the school.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8, 146-159.
- Kipper, L., & Giladi, M. (1978). The effect of psychodrama on test anxiety.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5(1), 17-27.
- Kovac, M., & Beck, A. T. (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NY: Raven Press.
- La Gory M. E., Ritchey, F. J., & Mullis, J. (1990). *Predictors of depression in street youth*. University of Liverpool.
- Oaklander, V. (1978). *Windows to our children: A Gestalt approach to children and adolescents*. Moab, UT: Real People Press(New York: The Gestalt Journal Press, 1992).
- Perls, F. (1970). *Gestalt therapy now*. New York: Harper & Row.
- Perls, F. S. (1976). *The gestalt approach and eyewitness to therapy*. NY: Bantam Books.
- Polster, E., & Polster, M. (1973). *Gestalt therapy integrated: Contours of theory and practice*. NY: Brunner/Mazel.
- Revienson, B. M., & Mezei, H. (1970). Self-concept and Ideal self concept of runaway youth: Counseling Implication, *Psychological Report*, 26(3), 87.
- Rothman., J. (1991). *Runaway and homeless youth: Strengthening services to family and children*. NY: Longman Publishing Group.
- Spielberger, C. D. (1966). *Anxiety and behavior*. NY: Academic Press.
- Spielberger, C. D., & Gorsuch, R. L. & Lushen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y Press.
- Tyson, G. M., & Range, L. M. (1981) Depression: A comparison and other views. *The Gestalt Journal*, 4(1), 57-64.
- Yate, L. R. Mackenzie, J. Pennbridge, & Cohen, E. (1985). A risk profile comparison of runaway reac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8, 820-821.
- Zinker, J. (1977). *Creative process in Gestalt therapy*. NY: Random House(Vintage).

1 차원고접수 : 2006. 10. 25.
수정원고접수 : 2006. 12. 7.
최종게재결정 : 2006. 12. 11.

The Effect of Gestalt Group Psychotherapy on Self-concept, Depression, Anxiety of Run out Adolescence

Min-Jung Kim

Kangnam St. Mary's Hospital

Jung-Kyu Kim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Gestalt group therapy for run out Adolescence, thus, it could help to develop a better group therapy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run out Adolescence, nine boys and thirteen girls, who stay at a shelter located in Seoul. According to the gender, the subjec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Each group includes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s receive the Gestalt group therapy six times throughout a week. Sungshin self-concept examination questionnaire invented by Jung-Kyu Kim is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self-esteem, emotional stability, 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personal trust. CDI is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depression such as depressive emotion, behavior barrier, the loss of interests, self abuse, and natural symptom and STAI is used for the anxiety lev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Gestalt group therapy shows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in general including emotional stability and personal trust, and especially, the effect on emotional stability maintains. Secondly, the Gestalt group therapy is effective on decreasing the level of self-abuse, the effect on self-abuse maintains. Finally, the Gestalt group therapy has a positive effect on decreasing the level of anxiety, and the effect maintains. Therefore, the Gestalt group therapy is positively effective over emotional stability, the anxiety level and self-abuse, especially right after the therapy, although the effectiveness could fade depending on the personal situation as time goes by.

Key words : Run out Adolescence, gestalt, group psychotherapy, self-concept, depression, anxiety